

휘발유 특소세 인하

시기상조인가, 만시지탄인가?



崔陽默

(MBC-TV 부국장대우 기획제작부장)

오늘날 우리들의 도시생활은 아파트와 자동차 증가로 특징지어도 무방할 것 같다.

전국 어디엘 가도 나날이 늘어나는게 아파트요 웬만한 길은 자동차의 행렬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분명한 원인으로 해서 지구촌 도처에서 가중되고 있다.

즉 센트로(시가의 중심지)는 땅값이 비싸 공공기관, 상가, 유흥업소 등이 차지해 버리니, 사람들은 자연히 집값이 싸고 도심지 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외곽지대로 쫓겨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생활구조도 일터와 잠자리의 분리원칙에 따라 오피스타운과 베드타운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없고, 월급쟁이들은 출퇴근만으로도 하루 수십킬로를 오가야만 한다.

또 관청이나 회사에서 하는 일도 계속 전문화, 세분화 되어 이동에리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집안에서 먹고 사는 일조차도 시시각각으로 변해 미디어를 통한 각종 정보에 부족하지 않으면 금방 손해를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우리들은 미지의 결과를 위해 동서남북 사면팔방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새벽같이 일어나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마리 토끼도 놓친다는 속담과는 정반대로, 하루에도 여러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전세를 살면서도 자가용을 장만하고 보다 높은 소득에 도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新中産層」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 중산층」은 삶의 질에 대한 고도의 욕구와 높은 꿈을 지니고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願望水準이 매우 높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별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표현대로 한껏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사회층제적인 개념으로 봐서 가장 활력과 탄력이 강한 신 중산층은, 과잉소비자라는 비난을 받지만, 또한 세계 등에서 일한 만큼 배려도 받지 못하는 다소 억울한 계층이다.

과잉소비문제는 절약이 미덕이나 소비가 미덕이나 하는 경제의 기본개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적지아니 우왕좌왕해 온 바가 있다.

즉 나라의 경제상황이 불리할 때는 절약이 곧 미덕이었고, 조금만 유리해지면 즉시 소비가 미덕으로 전환되는 알팍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초반 수정기를 경험하고 80년대 후반 3저현상의 덕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루면서 올림픽과 함께 그 마무리를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안정은 곧 과잉소비를 불러온다는 약점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5대도시만 봐도 백화점과 쇼핑센터, 슈퍼마켓이 수없이 늘어난다. 거기에는 수만가지 물건들이 쌓여있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뒤질세라 이것들을 사서 써버린다. 백화점의 일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봐도 과잉소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아침 저녁 쓰이는 것도 아닌 寶石도 34%나, 또 특수계층이 겨울에만 입게되는 毛皮도 34%를,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킹이 어려운 골프용품도 30%씩이나 特消稅를 引下하는 마당에 어찌해서 揮發油만은 특소세를 단 1%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理解할 길이 없다.

또한 주변만 돌아보아도 종이, 불펜, 커피, 약, 병원치료, 육류중심의 외식, 공연 등 과다하게 소비해야 할 대상들이 넘쳐 흐른다. 심지어 은밀해야 할 섹스까지도 공공연히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물론 과잉소비에 길들여져 익숙해지면 인간은 더욱 탐욕적이고 게을러진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되고, 계층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 자본주의의 본질은 열심히 일해 노력한 사람이 얻는 급부를 존중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자본이 축적되면 부가가치를 낳아 일을 안하고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결함도 동반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과 모순을 세금으로 조절해 각 계층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수립자들은 안정이나 또는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나 갈림길에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전 세계를 동일경제권역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특히 공업선진국 제국들의 무역개방압력이 점증되는 오늘의 과잉소비시대에서는 종래의 소비에 대한 기본

기념은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사람이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의 척도이듯, 성실하게 많이 일하고 정직하게 많이 벌어서 또 많이 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애기다. 많이 쓰는 사람은 무조건 옳지 못한 부류라는 오도된 관념도 해소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래의 소비개념 붕괴와 함께, 특별소비세율도 각 부문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5월17일의 보도에, 정부는 현재 85~10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70%선으로 낮추기로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

었다.

그 이유로, 관계당국자는 자동차의 보유가 대중화됨에 따라 당초의 특별소비세 입법취지가 시의에 맞지 않게 된데다, 고율의 특소세로 소비자 가격이 공장도가격보다 배 이상 높은 휘발유와,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솔벤트 등 용제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조장되고 있는 불법 휘발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휘발유의 특소세율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특소세 85~100%를 15~30% 내려 70%선으로 인하할 경우 총 50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재의 사회여건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특소세인하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기사는 토를 달고 있다.

또한 지난 8월17일, 정부는 각종 세계개편안을 마련해 세계발전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 세계개편안 중 특별소비세율의 조정을 보면 휘발유부문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서 신 중산층

의 한 사람으로, 또 과거에도 고가의 휘발유를 수없이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기약없이 기름을 써야 할 입장에서 보면 그 제외가 몹시 부당하고 서운하게 여겨진다.

물론 국가야 세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라던가 기타 음성적이었던 많은 새로운 세원을 속속 발굴해 내면서도 500억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휘발유세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아래의 도표를 보면 그러한 심정을 가라앉힐 수 없는 더 많은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것이 아닌 보석도 34.0%, 또 특수계층이 겨울에만 입게 되는 모피도 34.0%, 아무리 인도어에서 날고 기어도 부킹이 여의치 않아 애태우기만 하는 골프용품도 30.6%, 그리고 휘발유를 몰쓰듯 써야 하는 그랜저 2.4도 2.9%를 인하하면서 어찌해서 휘발유특소세는 단 1%도 내리지 않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도저

히 풀 길이 없다.

그렇다면 휘발유는 이 도표에 포함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들만 쓴다는 말인가?

귀신은 경문에 막히면 안되고 사람은 경우에 어긋나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즉 세금과 같은 4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어느 부분 어느 계층에도 공정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속히 바로 잡혀야 함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안정을 바탕으로 한 복지(분배)정책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할 중산층의 한사람으로서, 또 여러해 동안 교통프로그램 전문프로듀서로 일한 소견으로도 휘발유특소세인하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모든 국민들과 정책관계자들과 함께 자문해 보자.

휘발유특소세 인하는 시기상조인가? 아니면 만시지탄인가? ☐

◇ 특별소비세율조정효과

(단위=원, %)

품 명	실 행 세 율		규격(제조회사)	출 고 가 격			소 비 자 가 격	
	현행	개정(안)		현행	변경	인하율	현행	변경예상
(제 증물품)								
보 석	70(110.1)	20(38.6)	다이아몬드3부(시중금은방)	840,000	554,400	△34.0	840,000	554,400
귀 금 속	21(40.03)	10(24.3)	10톤중(시중금은방)	580,000	515,040	△11.2	580,000	515,040
모 피	70(110.1)	20(38.6)	밍크코트(건도)	5,200,000	3,432,000	△34.0	5,200,000	3,432,000
투전기등 오락용품	70(110.1)	30(52.9)	투전기1대(케임코산업)	600,000	436,800	△27.2	600,000	436,800
골프용품	70(110.1)	25(45.75)	골프1세트(반도스포츠)	830,000	576,020	△30.6	1,300,000	902,200
가 구	10.5(25.015)	10(24.3)	상동10사(보루네오)	1,100,000	1,093,400	△ 0.6	1,400,000	1,391,600
특수화장품 (제 증물품)	14(30.02)	10(24.3)	선크림60g(한국화장품)	3,583	3,425	△ 4.4	6,800	6,501
공기조절기	28(50.04)	25(45.75)	FA-220C(대우전자)	380,000	368,980	△ 2.9	437,000	424,327
냉장고								
- 대형	28(50.04)	25(45.75)	SR-321(삼성전자)	414,200	402,188	△ 2.9	497,000	482,587
- 소형	19.6(38.028)	15(31.45)	SR-201(삼성전자)	275,100	261,895	△ 4.8	330,000	314,160
전기세탁기	28(50.04)	20(38.6)	SEW409AH(삼성전자)	243,200	224,717	△ 7.6	291,000	268,884
T V								
- 흑백	3.5(15.005)	비파세(10)	BS-200(금성사)	81,600	78,010	△ 4.4	98,000	93,688
- 컬러								
- 대형	28(50.04)	25(45.75)	KNR-9,002(금성사)	499,000	484,529	△ 2.9	599,000	581,629
- 소형	19.6(38.028)	15(31.45)	CNR-4,485(금성사)	196,000	186,592	△ 4.8	276,000	262,752
관련제품	28(50.04)	25(45.75)						
전기음향기기								

품 명	실 행 세 율		규격 (제조회사)	출 고 가 격			소 비 자 가 격	
	현행	개정(안)		현행	변경	인하율	현행	변경예상
소형	4(15.72)	비과세(10)	TCR131(금성사)	27,701	26,344	△ 4.9	36,800	34,997
기타	10(24.3)	6(18.58)	CS-1,800 (인켈)	668,305	637,653	△ 4.6	878,400	837,994
전기·전열·가스기구	19.6(38.028)	15(31.45)	전자레인지140MS(대우전자)	173,000	164,696	△ 4.8	218,000	207,536
승용자동차								
4륜지프	10(24.3)	10(24.3)						
-1,500cc이하	10.5(25.015)	10(24.3)	프레스토AMX-FX(현대)	4,533,000	4,505,802	△ 0.6	4,533,000	4,505,802
-2,000cc이하	16(32.88)	15(31.45)	로얄프린스1,900HI(대우)	10,163,000	10,051,207	△ 1.1	10,163,000	10,051,207
-2,000cc이하의 6기통	24(44.32)	(삭제)						
-2,000cc초과	28(50.04)	25(45.75)	그랜저2.4 A/T(현대)	22,883,000	22,219,393	△ 2.9	22,883,000	22,219,393
모터보트·요트								
대형	48(78.64)	30(52.9)	보트선체16ft(4.8m)	1,168,000	1,146,980	△ 1.8	1,168,000	1,146,980
기타	32(55.76)							
피아노								
그랜드형	21(40.03)	20(38.6)	SG172C (삼익악기)	2,290,000	2,267,100	△ 1.0	2,890,000	2,861,100
기타	14(30.02)	10(24.3)	U-121F (영창피아노)	994,075	950,336	△ 4.4	1,279,000	1,222,724
고급시계	21(40.03)	20(38.6)	3420K(삼성시계)	588,120	582,239	△ 1.0	800,000	792,000
V T R	28(50.04)	25(45.75)	SV-440C (삼성전자)	365,000	354,415	△ 2.9	438,000	425,298
영상기 고급사진기	28(50.04)	25(45.75)						
TV 영상투사기	28(50.04)	30(52.9)	P J T 4,588(금성사)	3,380,000	3,444,220	+ 1.9	3,880,000	3,953,720
크리스탈유리제품	14(30.02)	10(24.3)	언더락스1개(두산유리)	5,000	4,780	△ 4.4	7,800	7,457
스키용품	32(55.76)	25(45.75)	플레이트 A S 2,000	272,430	254,990	△ 6.4	487,500	456,300
고급전화기	산규(10)	25(45.75)	Video Phone(금성통신)	150,000	198,750	+32.5	200,000	265,000
(제쥬물품)				(출고예정가)			(시판예정가)	
코피와 코코아등								
코피·코코아	28(50.04)	20(38.6)	파인코피250g (동서식품)	2,895.77	2,674.98	△ 7.6	3,390	3,132
카카오마스	14(30.02)	10(24.3)	카카오마스1kg(롯데제과)	5,300	5,067	△ 4.4	5,300	5,067

